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활력촉진형 8월 프로그램 소개서

□ 사업개요

- (사업명)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활력촉진형 예술이대서귀포: 혁신이 주는 달콤함
- (행사기간) 3월 ~ 10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있는 문화가 있는 주간
- (사업목적)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스펙트럼 확장

□ 8월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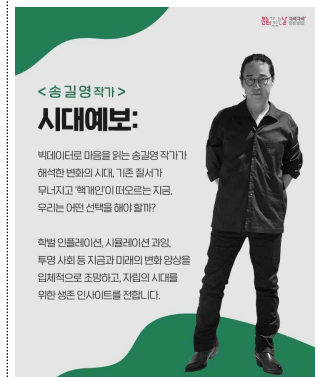
구분	행사명	출연진	일시	장소	
예술이 다	서귀포에서 만나는 우수 공연	다시, 봄	서울시뮤지컬단	8.29.(금) 19:30 8.30.(토) 14:00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대표 창작 레퍼토리 작품 - 누군가의 딸, 엄마, 아내로 살아온 여성들의 저무는 삶이 아닌 새로운 꿈을 그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2막 이야기		
예술이 다!	로비가 강연장	시대예보: 핵개인의 호명사회	송길영 (작가), 정인성(남만유랑악단)	8.28.(목) 18:3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로비
			- 다음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를 역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변화 분석 전문가가 들려주는 시대예보: 핵 개인의 호명 사회 - 「시대예보:호명사회」, 「시대예보:핵개인의시대」의 저자		

□ 8월 로비가 강연장 [시대예보:핵개인의 호명사회] 소개서

- (강연명) 시대예보: 핵개인의 호명사회
- (강연일시) 2025. 8.28.(목) 18:30
- (강연장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로비
- (대상자) 본 강연에 관심있는 누구나
- (사전예약) 이벤티스 예약 시스템 (<https://vo.la/flqo9F>)
- (강연자소개)



송길영은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개인들의 행동은 무리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적응으로부터 도출됨을 이해하고, 그 합의와 변천에 대해 알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영감을 받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저서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상상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시대예보: 호명사회>가 있다.



2009년부터 '낭만유랑악단'으로 활동해온 싱어송라이터 정인성이, 수많은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쌓아온 기타 연주와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정인성'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이번 <로비가 강연장>에서 들려줄 노래는 제주 이주 이후의 삶을 음악으로 그려낸 개인앨범 [집]의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8월 뮤지컬 <다시, 봄> 공연 소개서

- (공 연 명) 왁자지껄 수다 뮤지컬 「다시, 봄」
- (공연일시) 2025. 8.29.(금) 19:30, 8.30.(토) 14:00 (80')
- (공연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시 태평로 270)
- (사전예약) 네이버 예매 시스템 (<https://vo.la/PAacPwY>)
- (기타사항) 유료공연(1층 20,000원 / 2층 15,000원), 8세 이상 관람가
- (시놉시스)

딸로, 부인으로, 엄마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새 반 백살이 된 일곱명의 그녀들.

큰 마음먹고 떠난 오랜만의 나들이에 들뜬 기분도 잠시, 일상의 의무와 책임들은 여전히 그녀들의 발목을 잡고, 갱년기에 얼굴은 수시로 달아오른다. 설레는 마음과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이 버스 밖 풍경처럼 그녀들을 스쳐가는 사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그녀들을 덮치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떠나는 엉뚱하고 놀라운, 왁자지껄 수다 여행. 그 여행의 끝에서 그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붙임. 포스터 1부.